

## (日) 창립 100주년을 향한 제5회 본부간부회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메시지

왕자<王者>의 긍지를 품고 인간혁명을 향해 비약



1990년 11월, 본부간부회에서 스피치하는 이케다 선생님(스가모 도쿄도다기념강당). 고뇌를 뚫고 상쾌하게 환희에 찬 전진을!

다사다난한 올 한 해, 전 세계 창가가족은 “고락(苦樂)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어서 1143쪽)라는 말씀대로 묘법(妙法) 유포를 위해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곳곳이 싸워 ‘창립의 날’이자 창립의 아버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선생님의 ‘순교의 날’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대단히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큰 박수)

어본불은 “묘법의 오자(五字)를 흥통하신다면 지자(智者)는 아무리 천(賤)할지라도 상행보살(上行菩薩)의 화신(化身)인가, 아니면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사자(使者)라고 생각할지어다”(어서 550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복덕이 얼마나 커다란가. 특히 다보회·보수회·금보회를 비롯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우(寶友)의 존귀한 분투에 최고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전 동지에게 감사와 상찬의 마음을 담아 휘호 세 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휘호 ‘교학재보’

먼저, 이번에 발간하는 신판 ‘니치렌대성인어서전집’을 기념해 선사하는 ‘교학재보(敎學材寶<財寶>)’입니다.

돌이켜보면, 1952년 입종 700년의 가절에 완성한 창가학회판 ‘어서전집’ <발간사>에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선생님은 “금후(今後)의 보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런 은사의 서원(誓願)을 이어받아 커다란 보은의 마음으로 어본불 탄신 800년인 올가을, 종람이청(從藍而靑)의 준영들과 함께 발간을 실현했습니다.

‘교학’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재보(財寶)’이자 아울러 전 인류에게 더없이 소중한 ‘재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혜를 짜내 각국, 각지에서 꾸준히 실시하는 교학 연찬은 얼마나 고귀한 구도심인지 모릅니다.

지구 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확고한 희망의 성전이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교학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생명존엄의 철리(哲理)를 내걸고 세계시민의 크나큰 연대를 더욱더 폭넓게 구축할 때입니다.

이어서, 우리 여자부의 영예로운 여성부 제1기생으로서의 비상을 축하해 선사하는 ‘영광천사의 하늘(榮光天使空)’입니다.

‘창립의 날’인 오늘, 신판 어서 발간과 동시에 여성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은 화양 자매들에게 ‘교학으로 일어서라’고 바라신 은사도 분명 밝게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은사는 창가(創價)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어서에는 “이 경(經)은 여인성불(女人成佛)을 본보기로 하여 설해졌다”(어서

1311쪽)고 씌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목을 곳곳이 부르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의 천사’ ‘평화의 천사’로서 ‘환희 중의 대환희’의 춤을 즐겁게 사이 좋게 편안하게 넓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우인을 소중히 하면서 넓디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지용(地涌)의 연대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영광의 푸른 하늘로 이끌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청년·비약의 해’ 개막을 맞아 선사하는 ‘영지광포의 날개(英智廣布翼)’입니다.

대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생성을 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궁극의 법칙이 묘법입니다. 이 힘을 자타 함께 발휘하여 ‘월월·일일’ 타성을 타파하고 눈부신 생명의 비약을 이뤄 더 좋은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인간혁명의 위대한 불법(佛法)입니다.

“미워하려면 미워하라”(어서 1308쪽)며 의연하게 신심을 관철하신 대성인은 동지를 지키고 후계를 육성하는 다기진 센니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문은 일체경(一切經)보다 뛰어났으니, 땅위를 달리는 자(者)의 왕(王)인 사자왕(師子王)과 같고, 하늘을 나는 자의 왕인 독수리와 같다.”(어서 1310쪽)

내년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광포확대의 비약을 이룬 ‘2월투쟁’을 펼친 지 70주년의 가절을 맞이합니다.

다 함께 혼미한 세상에 정의와 용기에 넘친 사제불이(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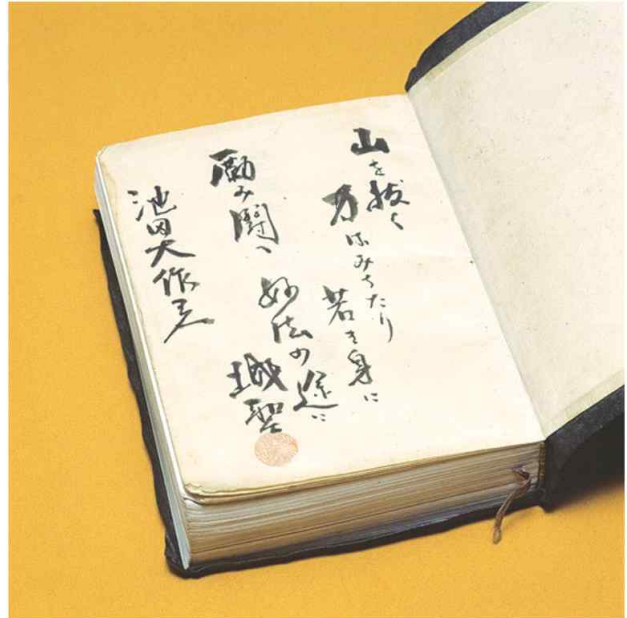
휘호 ‘영광천사의 하늘’



휘호 ‘영지광포의 날개’

弟不二)의 사자후(師子吼)를 발산해  
고뇌하는 벼를 감싸 격려하는 자비와  
영지의 날개를 활짝 펴고 왕자(王者)  
의 긍지로 위풍당당하게 비약하지 않  
겠습니까!

70년 전, 사제(師弟)가 힘을 합쳐 완  
성한 '어서전집'에 은사는 시를 써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담긴 시  
한 수를 사랑하는 불이(不二)의 청년  
에게 그리고 청년의 마음으로 일어난  
모든 보우에게 선사하며 메시지를 마  
치겠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이케다 선생님에게 선사한 창가학회 판 '어서전집'. "산을 뿔는 힘은 넘치도다 젊은 몸으로 노  
력하고 투쟁하라 묘법의 길에"라는 시가 힘찬 필체로 씌어 있다.

산을 뿔는  
힘은 넘치도다  
젊은 몸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라  
묘법의 길에

일본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미래를 위해 창가는 승리로 전진합시다!(큰 박수)  
2021. 11. 18